

“발효소스 토굴서 최신형 VR 체험하세요”

〈가상현실〉

순창군, 5억2000만원 투입
1인 플레이어형 콘텐츠 구축
참가자 스틸·재미 직접 만끽



순창군 발효소스 토굴을 찾은 학생과 관광객들이 최신형 VR 체험 콘텐츠 장비를 이용해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발효소스 토굴서 최신형 VR(가상현실) 체험하세요.”

순창군에 따르면 최근 군의 대표 랜드마크 자리매김한 순창군 발효소스 토굴에 최신형 VR 체험 콘텐츠를 구축했다.

이번 콘텐츠는 군이 사업비 5억2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설치한 VR 체험 콘텐츠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체험감과 재미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VR 콘텐츠는 HMD(Head Mounted Display) 방식으로 VR 기기를 쓰고 콘텐츠 내 영상을 보는 수준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신규로 구축한 콘텐츠는 FPS(First-Person Shooter) 방식으로 참가자가 콘텐츠 내 1인 플레이어가 돼 직접 참여해 스틸과 재미를 선사한다.

특히 호남지역 최초로 옴니 트레이드밀(Omni-Trademill) 장비를 설치해 현실감을 더했다.

아울러 군은 발효소스 토굴을 배경으로 참가자가 특수부대 요원으로 변신, 테러리스트가 탈취한 순창군의 대표 씨장장 비법서를 탈환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마련, 순창군 장류 홍보에도 신경썼다.

여기에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체험료는 발효소스 토굴 입장료(성

인 2000원, 청소년 500원)만 내면 돼 인간이 운영하는 VR 기기 체험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VR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효소스 토굴에는 세계소스관과 미디어아트관, 트리아트, 원형저장고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관이 구성돼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를 위한 휴식

공간으로 ‘발효 커피 카페’도 마련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발효소스 토굴을 언제나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53-6159, 650-5434)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y@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492억원을 투입해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등 '미생물 증가 프로젝트 시즌 2'를 추진한다. 지난 2016년 생명연구원 전북분원에 들어선 미생물 가치평가센터.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북도, ‘미생물 증가 프로젝트 2’ 사업 추진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492억원을 투입해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등 '미생물 증가 프로젝트 시즌 2' 9개 사업을 추진한다.

미생물은행은 장 안의 유익한 세균을 분리해 보관하는 시설로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300억원이 투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축산항생제 대체제를 개발하는 연구 활동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20억원을 들여 복합 미생물산업화기반 구축사업을 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합 미

생물 제조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는 80억원을 투입해 유용 종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반제품 원료를 생산하는 발효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를 순창에 건립한다.

전북도는 이들 사업을 통해 미생물 분야의 국가적 거점으로 자리 잡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낼 계획이다.

앞서 전북도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미생물 분야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는 '미생물 증가 프로젝트 시즌 1' 사업을 해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광한루 건립 600주년 기념행사

남원시가 광한루 건립 6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연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광한루원 현판 제막식(사진)을 시작으로 '광한루 600년! 관광객 600만 유치!'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연말까지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지난 11일 광한루원 정문에 내건 현판에는 '광한루 600년의 해'라는 글귀를 담았다. 우선 여름 휴가철인 8월 2일부터 10일까지를 기념주간으로 정해 성대한 축하공연과 체험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초부터는 광한루원 무료 야간 개장시간을 오후 7시에서 9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축제이자 사랑축제인 제89회 춘향제를 광한루원 일원에서 연다.

광한루원 안에 있는 광한루는 조선 초기인 1419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이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1626년에 복원했으며 보물 제281호로 지정돼 있다.

평양 부벼루, 진주 축서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불리며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한루를 품고 있는 광한루원은 조선 시대 모습을 간직한 유일한 관아 정원으로 명승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슈메이커 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2년과정 수제화 실무 교육...청년 일자리 창출

정읍시는 청년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한 슈메이커(Shoe Maker, 구두장인) 양성 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그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전북도공예협동조합과 함께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 수제화 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슈메이커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수제화 장인들의 1대 1 도제방식 교육을 통해 슈메이커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한다.

이 교육은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수제화 관련 취·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 10명을 선발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17일까지 전북도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정읍시예술회관 1층 한국예총정읍지회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청년 메이커센터(maker center)를 건립할 예정이 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저소득층 난방비 절감 나선다

단열·노후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저감사업 시행

익산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 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단열, 창호, 노후보일러 등을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가구당 평균 200만원 가량의 설비비를 지원 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대상자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같은 사업으로 80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 가구는 18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시공업체에서 직접 방문해 에너지진단을 받은 후 결정된다.

/익산=유영명 기자 yjy@

군산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책 편다

건고추·노지감자·생강·대파 등 가격 폭락시 일부 지원

군산시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급 불안 및 가격 변동 폭이 큰 노지 원예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전북도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군산원에농협에 출하하는 1000㎡~1만㎡의 규모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다.

대상 품목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등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신청받는 다.

신청은 군산원에농협과 출하계약을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영업 군산시 농산물유통과 과장은 “이 사업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 급매 - 8500만원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매매 - 7,5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